

학령기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연구

지 은 선* · 조 결 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정상 가족, 편부모 가족, 자녀없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Shirley, 1986). 특히 대부분은 양부모가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오늘날엔 편부모와 자녀들만 사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편부모 가족은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사는 부자 가족과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사는 모자 가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과거의 편부모 가족은 주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사망에 의한 편부모 가족의 발생비율보다 이혼, 별거, 유기애에 의한 편부모 가족의 발생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사회 변화의 산물인 이혼 등에 의한 편부모 가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이혼이 하나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과정으로서 보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 구조도 다양해져 가고 있어서, 이혼가족도 하나의 가족구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Anne, 1993).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서구 사회만큼 이혼율이 혼인율을 앞지를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이혼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88년 전후로 그 상승추세가 주춤하는 듯 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 사회의 이혼율의 척도인 이혼신고 건수 대 혼인신고 건수 비율의 변화가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즉 '70년 4.3%, '90년 11.9%, '95년 18.1%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Jung, 1996). 이와 같이 증가일로에 있는 이혼 추세와 더불어 주목하게 되는 점은 이혼부부의 90% 이상이 결혼 후 1년 이상이 지나 한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 결정을 한다는 사실이다(Administrative of court, 1995). 이혼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편부모 가정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통계청이 200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우리사회의 연간 이혼 건수는 12만 건으로, 하루 평균 329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70.4%(자녀가 2명인 경우가 34.3%로 가장 많고, 1명인 경우는 31.7%, 3명 이상인 경우는 4.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하루 평균 262명, 한해 평균 95,630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가정으로 남게됨을 보여주고 있다(Lee, 2001).

부모의 이혼으로 부부 당사자들 못지 않게 가장 고통을 받는 이는 자녀들이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사회적, 학업적 문제로 자녀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문제로는 부모이혼의 스트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레스가 건강증상과 관련되어(Yarchesk & Mahon, 1986). 이로 인한 생활의 불균형을 평형상태로 되찾기 위한 재적응 에너지의 소모증가로 신체 저항력이 감소되고, 질병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Holmes & Rahe, 1967; Rhu, 1994). 정서적 문제로는 이혼 직후 분노, 후회, 걱정, 우울증 심지어는 죄의식 등의 정서적인 갈등을 보이며(Hetherington, 1989; Stanley-Hargan & Anderson, 1987), 행동적·사회적 문제로는 공격적 행동, 불복종, 반항적 행동을 하고 동료관계에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학업적 문제는 학업성적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낸다(Stolberg et al., 1987). 이처럼 이혼 가정 자녀들은 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들에 비해 자기 비난과 대인적인 부조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인지적인 문제를 보이는가하면, 공격적이거나 친사회성 부족 등의 행동 및 사회적 문제를 드러낸다.

많은 연구에서 이혼의 영향이 자녀의 연령, 성별, 분리기간, 부모의 양육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 이혼시 자녀의 발달정도에 따라 적응 문제가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학령기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낸다(Fergusson et al., 1994). 청소년기와는 다르게 이 시기 아동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며, 부모의 이혼에 대해 창피함을 느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혼 가족의 자녀 중 특히 여아에게 임상적으로 우울한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격리 혹은 분리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다(Hetherington et al., 1989; Joo, 1991). 부모의 이혼 직후 자녀들은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적응하여 안정된 상태에 이른다. 특히 이혼 후 2년은 자녀의 적응과정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Bronkowski et al., 1985; Hetherington, 1987; Hodge, 1991). 부모의 양육형태는 자녀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 외에 문제행동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Stolberg & Bush, 1985). 이렇듯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단기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초기의 영향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이 사망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사회로부터 받는 특수한 압력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이며, 혼자 남게된 부모는 정서적, 사회적,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자

녀에게 미친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자녀가 받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발달상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간호학에서도 이혼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이혼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내용적으로도 인지변화와 정서적 영향에 관하여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 건강상태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였고, 학령기 이혼가정 자녀의 사회생활영역인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또한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 간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및 학교생활적응정도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건강상태 및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 정상가정자녀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함으로써, 이혼가정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를 위한 학교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정상가정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의 건강상태를 비교 한다.
- 2) 정상가정 자녀와 이혼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정도를 비교한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 군간의 건강상태를 비교한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 군간의 학교생활적응정도를 비교한다.

3. 용어의 정의

1) 건강상태

불구, 질병의 증상과 증후가 없는 신체적인 건강과 생 각, 감정, 행동이 평형을 이루며 환경에 잘 적응하는 정신적인 건강(Kim et al., 2001)을 포함한 현재의 건강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Shin(1995)의 건강증상 조사서에 의해 측정된, 아동이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말한다.

2) 학교생활적응정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Ahn, 1984), 본 연구에서는 Lee(1990)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정도도구에 의해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 관계에 대한 내용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이혼가정자녀에게 접근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표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의 이혼가정자녀에게 일반화시키는데는 무리가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혼가정 자녀와 정상가정 자녀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적응정도에 관한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동대문구)·경기지역(의정부, 분당)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 5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의 4·5·6학년 중 1학급씩 무작위로 표출하였고, 표출 된 학급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 설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직접 기입이 가능한 학생을 선택하였다.

3. 연구도구

1)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는 Shin(1995)이 아동에서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상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건강증상 조사서를 연구자가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이 경험하는 증상에 대하여 '매우 자주 있다(3점)'에서 '전혀없다(0점)'의 4점 척도(0점-3점)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90점부터 최하 0점까지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Shin(1995)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이 .92였으며, Cho(1998)의 연구에서도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적응정도

본 연구에서는 Lee(1990)이 개발한 학교생활적응정도도구를 연구자가 보안하여 사용하였다. Lee(1990)의 학교생활적응정도도구 중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관계, 학교 행사 관계의 4개 하위영역을 선택하여 각 영역별 5문항씩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반응 범주를 4점 척도(0-3점)로 하여 최고 60점에서 최하 0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정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199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67이었고,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Koo(1995)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866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예비조사는 2001년 6월 21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경기지역 초등학교 학생 중 정상가정자녀 15명과 이혼가정자녀 15명에게 실시한 후 측정도구가 적절한지를 신뢰도 검사하여, 아동이 어려워하는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재작성된 질문지를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 보건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 기입요령을 사전교육하고, 보건교사는 각 반 전체 아동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당일 회수하였다. 총 700부로 모두 회수되었으나 그 중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86부를 제외한 614부만을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이 중 정상가정자녀로부터 497부, 이혼가정자녀로부터 117부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모두 SPSS PC+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성별과 부모와의 분리기간, 부모의 양육형태, 부모이혼 후의 경과시간 등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서 χ^2 -test를 사용하였다. 정상가

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 및 학교생활적응정도의 점수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t-test와 일원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의 비교는 〈Table 1〉과 같다. 즉, 성별, 출생순위, 종교, 학교성적,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 직업 및 경제상태는 두 군이 동질하지 않았다.

정상가정자녀 중 남자아동(48.5%)가, 여자아동(51.5%) 보다 적었고, 이혼가정자녀 중 남자아동이(63.2%) 여자아동(36.8%)보다 많았으며, 학년별 분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Normal family children & Divorced family children (N=6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rmal Family (N=497)		Divorced Family (N=117)		χ^2	df	p
		N	(%)	N	(%)			
gender	male	241	48.5	74	63.2	8.25	1	.004*
	female	256	51.5	43	36.8			
grade	fourth year	40	8.0	11	9.4	1.99	2	.369
	fifth year	100	20.1	17	14.5			
	sixth year	357	71.8	89	76.1			
brotherhood	eldest son(daughter)	218	43.9	40	34.2	8.02	3	.045*
	middle son(daughter)	51	10.3	15	12.8			
	youngest son(daughter)	150	30.2	49	41.9			
	only son(daughter)	78	15.7	13	11.1			
religion	protestant · catholic	182	36.6	64	54.7	22.14	3	.000*
	buddhism	123	24.7	16	13.7			
	others	7	1.4	6	5.1			
	no religion	185	37.2	31	26.5			
educational point	top	343	69.0	58	49.6	33.91	2	.000*
	middle	142	28.6	43	36.8			
	bottom	12	2.4	16	13.7			
pocket money/month	> 50,000	24	4.8	11	9.4	13.06	3	.005
	10,000 - 50,000	359	72.2	92	78.6			
	< 10,000	80	16.1	14	12.0			
	none	34	6.8	-	-			
conversation people	parent/ sibling/ family	239	48.1	38	32.5	23.18	1	.000
	friend/ pupils	197	39.6	43	36.8			
	others	15	3.0	9	7.7			
	nobody	46	9.3	27	23.1			
father's educational level	less than primary school	8	1.6	2	1.7	99.19	3	.000*
	middle · high school graduate	244	49.1	50	42.7			
	post-graduate studies	241	48.5	38	32.5			
mother's educational level	less than primary school	5	1.0	1	0.9	78.23	3	.000*
	middle · high school graduate	303	61.0	64	54.7			
	post-graduate studies	189	38.0	52	44.4			
father's job	professional · desk work	250	50.3	42	35.9	14.69	1	.000*
	sales · service	133	26.8	27	23.1			
	simple labor	114	22.9	48	41.0			
mother's job	professional · desk work	111	22.3	18	15.4	0.91	1	.338
	sales · service	77	15.5	25	21.4			
	house keeper	309	62.2	74	63.2			
economic status	high	218	43.1	37	31.6	10.02	3	.018*
	middle	270	54.3	73	62.4			
	low	9	1.8	7	6.0			

는 정상가정과 이혼가정 모두 6학년이(71.8% : 76.1%) 가장 많았다. 정상가정자녀의 경우 장녀 혹은 장남이 43.9%로 가장 많았고, 이혼가정자녀의 경우 막내가 41.9%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정상가정자녀의 경우와 이혼가정자녀의 경우 기독교·천주교가 각각 36.6%와 54.7%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혼가정 자녀 군에서는 더 높은 율을 차지하였다. 학업성적은 정상가정자녀의 경우와 이혼가정자녀의 경우 학급상위권이 각각(69.0%, 49.6%) 3단계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한달 용돈은 정상가정의 자녀와 이혼가정의 자녀 모두 1~5만원이 각각 72.2%와 78.6%으로 가장 많은 율을 차지하였다. 대화상대는 부모·형제·가족이 32.5%, 친구·선후배가 36.8%, 기타가 7.7%으로 강아지나 인형 또는 컴퓨터 등이 있었고, 대화상대가 없음이 23.1%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정상가정자녀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4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48.5%를 차지했으며, 이혼가정자녀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2.7%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정상가정자녀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6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38.0%를 차지했으며, 이혼가정자녀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 이

하가 55.6%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정상가정의 경우 전문직·관리직·사무직이 50.3%, 이혼가정의 경우 생산직·운송업·단순노동이 41.0%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은 정상 가정이나 이혼가정 모두 주부가 각각 62.2%와 63.2%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정상가정자녀나 이혼가정자녀 모두 보통이 각각 54.5%와 61.5%로 가장 많이 분포하여 대부분이 중류층에 속하였다.

2.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 비교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 비교는 〈표 2-1〉와 같다. 정상가정자녀가 평균 11.99점, 이혼가정자녀가 평균 19.15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51$, $p=.000$).

〈Table 2-1〉 Health state

	M	SD	t	p
Normal family	11.99	9.95	- 6.51	.000*
Divorced family	19.15	13.84		

* $p<.05$

〈Table 2-2〉와 같이 '쉽게운다', '근육통이 있다', '밥

〈Table 2-2〉 Health state of normal family children and divorced family children (N=614)

Contents	Normal family (N=497)			Divorced family (N=117)			t	p
	M	SD	rank	M	SD	rank		
I have a short breath	0.23	0.48	27	0.48	0.67	22	-4.60	.000*
I feel our of breath and my chest hurt	0.31	0.52	19	0.56	0.73	21	-4.18	.000*
I panic without any reason	0.19	0.46	28	0.39	0.68	28	-3.72	.000*
My hands and feet are shaking	0.18	0.42	29	0.36	0.61	29	-3.74	.000*
A cry easily	0.52	0.75	6	0.66	0.90	14	-1.81	.094
I blame myself for certain things	0.49	0.63	9	0.68	0.73	11	-2.73	.003*
I have a muscleache	0.48	0.68	10	0.67	0.91	13	-2.63	.009
I feel lonely	0.43	0.68	12	0.78	0.82	6	-4.63	.000*
I have constipation	0.11	0.43	30	0.26	0.63	30	-3.06	.002*
I suddenly get the fever and I get cold	0.27	0.52	24	0.57	0.71	19	-5.52	.000*
I have an anxiety that nothing will work out	0.68	0.77	2	1.00	0.90	2	-3.78	.000*
I am sad	0.31	0.57	19	0.57	0.87	19	-3.71	.000*
I am scared	0.24	0.50	26	0.48	0.77	22	-4.14	.000*
I have no appetite for food	0.55	0.72	5	0.69	0.85	10	-1.79	.073
I feel like committing suicide	0.33	0.55	18	0.64	0.88	14	-4.78	.000*
I have a headache	0.74	0.77	1	1.05	1.00	1	-3.78	.000*
I make a mistakes front of other people	0.68	0.69	2	0.95	0.79	3	-3.64	.000*
I have diarrhea	0.33	0.52	16	0.46	0.60	25	-2.27	.014*
I have no interest in anything	0.38	0.63	14	0.62	0.86	17	-3.36	.000*
I urinate frequently	0.43	0.63	12	0.70	0.86	8	-3.85	.000*

〈Table 2-2〉 Health state of normal family children and divorced family children(continued)
(N=614)

Contents	Normal family (N=497)			Divorced family (N=117)			t	p
	M	SD	rank	M	SD	rank		
I get angry and restless	0.52	0.72	6	0.76	0.91	7	-3.11	.001*
I get cold sweat	0.33	0.62	16	0.64	0.83	14	-4.43	.000*
I chew on my fingernails and I pull my hair out without knowing	0.52	0.80	6	0.83	0.98	5	-3.59	.000*
I have insomnia	0.62	0.83	4	0.92	0.91	4	-3.37	.001*
I stutter	0.31	0.54	19	0.58	0.87	18	-4.08	.000*
I feel weak	0.47	0.62	11	0.70	0.73	8	-3.44	.001*
I have indigestion	0.34	0.59	15	0.68	0.86	11	-5.01	.000*
My face glows red	0.28	0.63	22	0.40	0.65	27	-1.77	.076
I have excruciating pains in my back and waist	0.26	0.60	25	0.47	0.70	24	-3.17	.002*
I cannot feel part of my body and it's numb	0.28	0.57	22	0.46	0.67	25	-2.85	.004*
Total	11.99	9.95		19.15	13.84		-6.51	.000*

*p<.05

'맛이 없다', '설사를 한다',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의 5개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정상가정자녀의 평균 점수가 이혼가정자녀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3.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는 〈Table 3-1〉과 같다. 정상가정자녀가 평균 38.9점, 이혼가정자녀가 26.97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04.07$, $p=.000$).

〈Table 3-1〉 School adaptation

	M	SD	t	p
normal family	38.99	11.81	104.07	.000*
divorced family	26.97	9.87		

*p<.05

하부영역별 비교시 4개 영역 즉, 교우관계($t=8.93$, $p=.000$) 학습활동($t=10.69$, $p=.000$), 규칙준수관계($t=7.75$, $p=.000$) 및 학교행사관계($t=8.31$, $p=.000$)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정상가정자녀가 이혼가정자녀보다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2〉).

〈Table 3-2〉 School adaptation of normal family's children and divorced family's children (N=614)

Categorize	normal family (N=497)		divorced family (N=117)		t	p
	M	SD	M	SD		
When one of our pupils forgot to bring their preparatory material or text books, our pupils share with each other	2.25	0.73	1.76	0.82	6.31	.000*
In school, our pupils do not slander or harm each other when studying	1.87	1.03	0.25	0.94	5.92	.000*
I am friendly with all my fellow pupils	2.27	0.74	1.85	0.94	5.23	.000*
When I do something wrong, I apologize first	2.09	0.90	1.62	0.92	4.99	.000*
When discussing or playing within the school, my fellow pupils listen to me	4.73	0.94	1.06	0.78	7.04	.000*
friendship	10.23	2.97	7.55	2.65	8.93	.000*
Class is fun	2.14	0.78	1.27	0.93	9.30	.000*
I understand the work I am doing in class while I am learning in class	2.14	0.78	1.27	0.93	9.18	.000*
I always do my homework and preparatory work	2.04	0.78	1.41	0.81	7.76	.000*
I do not horse play or think other thoughts during class	1.76	0.81	1.23	0.81	6.44	.000*
I always go over previous work and I prepare for future class	1.51	1.04	0.82	0.88	6.60	.000*

〈Table 3-2〉 School adaptation of normal family's children and divorced family's children (continued)
(N=614)

Categorize	normal family (N=497)		divorced family (N=117)		t	p
	M	SD	M	SD		
curricular activities	9.61	3.21	6.13	2.90	10.69	.000*
When I walk in the corridor I work on the left side instead of running	1.73	0.96	1.25	0.98	4.81	.000*
I use borrowed objects from friends and school like if it was mine	2.32	0.77	1.76	0.87	6.86	.000*
I always throw rubbish in the dustbin	2.15	0.83	1.67	0.90	5.45	.000*
When I want to use the tap in the toilet I always queue, even though it will take long for me to use	2.09	0.91	1.52	1.03	5.94	.000*
I always follow the life objectives set by the school	1.72	0.92	1.17	0.92	5.86	.000*
regulation methodology	10.05	3.43	7.33	3.32	7.75	.000*
I always atte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village clean ups, and community service	1.79	0.98	1.11	0.93	6.83	.000*
I do my best on sports day even though I am tired and hot	2.21	0.93	1.70	1.05	5.12	.000*
I sing my national anthem and I listen to my head master	1.80	0.88	1.19	0.77	6.82	.000*
I take great interest in school events such as drawing competition, debating competition, and writing competition	1.50	1.09	0.73	0.85	7.13	.000*
I always raise the national flag on national holidays	1.76	1.11	1.23	1.02	4.74	.000*
school events	9.10	3.78	5.94	3.24	8.31	.000*
Total	38.99	11.81	26.97	9.87	104.07	.000*

*p<.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및 학교적응정도 비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 비교는 〈Table 4-1〉과 같다. 성별, 출생순위,

〈Table 4-1〉 Health state of normal family children and divorced family childre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6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rmal Family (N=497)		Divorced Family (N=117)		t	p
		N	(%)	N	(%)		
gender	male	10.84	9.48	19.14	14.52	-5.74	.000*
	female	13.07	10.28	19.16	12.77	-3.46	.001*
grade	fourth year	9.60	7.02	14.54	8.66	-1.96	.055
	fifth year	12.41	8.79	19.38	11.18	-2.96	.004*
	sixth year	12.14	10.50	19.68	14.82	-5.51	.000*
brotherhood	eldest son(daughter)	11.85	9.07	18.50	13.50	-3.91	.000*
	middle son(daughter)	10.65	9.26	19.85	20.31	-2.47	.016*
	youngest son(daughter)	14.60	10.08	19.12	12.07	-2.60	.010*
	only son(daughter)	8.30	11.22	20.53	14.64	-3.47	.001*
religion	protestant · catholic	14.28	9.11	18.93	12.19	-3.20	.002*
	buddhism	11.73	10.80	18.37	11.25	-2.30	.018*
	others	11.14	10.07	10.50	8.73	0.12	.905
	no religion	9.95	9.76	21.67	18.19	-5.33	.000*
educational point	top	11.55	9.87	19.17	14.50	-5.00	.000*
	middle	12.77	10.11	18.18	13.27	-2.86	.005*
	bottom	15.41	9.80	21.75	13.53	-1.37	.182

〈Table 4-1〉 Health state of normal family children and divorced family childre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6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rmal Family (N=497)		Divorced Family (N=117)		t	p
		N	(%)	N	(%)		
pocket money/month	> 50,000	15.04	12.71	25.54	22.06	-1.78	.083
	10,000 - 50,000	12.40	9.94	18.06	12.09	-4.64	.000*
	< 10,000	12.96	8.35	21.28	16.26	-2.91	.004*
	none	3.23	6.91	0	0	-	-
conversation people	parent/ sibling/ family	12.45	10.24	17.50	11.73	-3.58	.000*
	friend/ pupils	10.64	9.45	17.58	10.94	-1.93	.000*
	others	9.80	5.58	17.44	15.00	-3.23	.086
	nobody	16.08	10.53	24.44	13.85	-5.88	.018*
father's educational level	less than primary school	14.50	12.32	21.50	9.19	-0.73	.481
	middle · high school graduate	13.82	10.67	20.56	16.41	-3.66	.000*
	post-graduate studies	10.07	8.75	18.30	12.39	-5.10	.000*
mother's educational level	less than primary school	14.80	7.15	25.00	-	-1.30	.263
	middle · high school graduate	13.52	10.70	17.92	13.87	-2.82	.005*
	post-graduate studies	9.44	8.12	20.21	13.14	-6.31	.000*
father's job	professional · desk work	9.57	9.50	22.64	16.87	-7.21	.000*
	sales · service	15.33	9.88	17.92	10.29	-1.23	.220
	simple labor	13.41	9.67	16.79	12.20	-1.87	.063
mother's job	professional · desk work	8.81	9.29	21.55	14.42	-4.95	.000*
	sales · service	14.66	9.50	19.72	14.39	-2.01	.046*
	house keeper	12.47	10.03	18.37	13.64	-4.21	.000*
economic status	high	9.76	8.60	20.72	15.56	-6.23	.000*
	middle	13.49	10.45	17.43	12.43	-2.74	.006*
	low	21.11	12.48	28.71	15.51	-1.08	.295

*p<.05

대화상대, 어머니의 직업의 모든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는 〈Table 4-2〉와 같다. 성별, 학년, 종교, 학업성적, 대화상대, 부모의 직업의 모든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있었다.

〈Table 4-2〉 School adaptation of normal family children and divorced family childre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6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rmal Family (N=497)		Divorced Family (N=117)		t	p
		N	(%)	N	(%)		
gender	male	39.24	0.76	25.22	9.25	82.33	.000*
	female	38.76	0.73	29.97	10.28	22.46	.000*
grade	fourth year	42.25	7.47	23.72	11.20	42.24	.000*
	fifth year	38.20	9.62	28.58	8.63	19.68	.000*
	sixth year	38.81	12.74	27.22	9.86	63.33	.000*

〈Table 4-2〉 School adaptation of normal family children and divorced family childre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d) (N=6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rmal Family (N=497)		Divorced Family (N=117)		t	p
		N	(%)	N	(%)		
brotherhood	eldest son(daughter)	39.33	11.39	30.35	10.24	21.66	.000*
	middle son(daughter)	34.47	9.84	29.40	11.16	2.60	.112
	youngest son(daughter)	35.64	9.41	25.00	8.69	53.94	.000*
	only son(daughter)	47.26	14.11	22.30	7.60	38.51	.000*
religion	protestant · catholic	41.64	12.63	26.45	8.46	41.62	.000*
	buddhism	35.48	8.95	27.65	9.65	37.83	.000*
	others	39.90	13.24	27.43	13.19	12.54	.001*
	no religion	42.28	10.25	23.50	9.26	11.82	.006*
educational point	top	40.24	10.98	30.17	10.19	41.38	.000*
	middle	36.69	13.47	24.95	8.94	31.52	.000*
	bottom	29.58	6.55	21.68	6.68	9.73	.004*
pocket money/month	> 50,000	35.50	10.16	26.00	12.87	5.56	.024*
	10,000 - 50,000	38.00	44.49	27.81	9.45	61.55	.000*
	< 10,000	37.61	9.39	22.21	9.34	32.05	.000*
	none	55.26	9.14	-	-	-	-
conversation people	parent/ sibling/ family	39.25	11.54	30.07	10.25	7.79	.006*
	friend/ pupils	39.65	13.03	27.95	9.04	30.73	.000*
	others	40.73	9.19	25.77	11.72	12.11	.002*
	nobody	34.28	6.31	21.96	7.97	53.16	.000*
father's educational level	less than primary school	26.37	8.05	28.50	4.94	0.12	.737
	middle · high school graduate	37.43	11.79	25.90	10.47	41.16	.000*
	post-graduate studies	41.07	11.56	29.50	10.45	37.86	.000*
mother's educational level	less than primary school	27.40	6.06	39.00	-	3.04	.156
	middle · high school graduate	37.53	11.25	25.44	9.30	64.73	.000*
	post-graduate studies	41.57	12.38	30.46	10.09	26.77	.000*
father's job	professional · desk work	42.81	12.51	27.07	10.15	59.77	.000*
	sales · service	35.76	10.19	28.18	10.87	12.13	.001*
	simple labor	34.40	8.94	26.20	9.16	27.94	.000*
mother's job	professional · desk work	43.61	12.96	27.66	11.82	23.96	.000*
	sales · service	33.16	9.34	26.04	8.21	11.61	.001*
	house keeper	38.79	11.26	27.12	9.99	66.84	.000*
economic status	high	41.93	7.30	26.00	10.22	18.26	.000*
	middle	36.09	11.99	27.04	9.38	37.77	.000*
	low	33.11	6.77	25.42	8.48	4.08	.063

*p<.05

IV. 논의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장발달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가장 현저한 시기인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You, 1985).

Erikson(1963)은 학령기의 자아발달은 바깥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사회적·학문적 기능을 익힘으로써 촉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은 가정 밖의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어렵게 하여 학업성적을 부진하게 하고, 또한 아동들로 하여금 내적인 갈등이나 불안에서 오는 신체적 고통을 호소케 한다. 즉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사회적, 학업적 문제로 자녀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혼가정환경의 자녀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학령기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 및 학교생활적응정도를 비교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수는 정상가정자녀가 497명 인데 비해 이혼가정자녀는 117명으로 차이가 있으나, 조사연구시 대상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통계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연구대상자 수를 조정하지 않고 모두 선정하였다. 한편 무작위 표집한 결과 이혼가정자녀가 20%에 가깝게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지역의 특성상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특성이 사업에 실패한 후, 혹은 이혼 후 이사를 온 가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건강상태에 관하여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를 비교하여 본 결과 정상가정자녀의 건강상태가 이혼가정자녀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Kurdek(1981)의 부모의 이혼이 주는 충격으로 우울의 반응과 심한 슬픔, 불안, 침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론과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건강문제는 높은 순상관성이 있다고 한 Cho(1998)과 Shin(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을 보면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 모두 '머리가 아프다'를 제외하고는 '매사에 걱정이 많고 일이 잘 안될까봐 불안해한다', '사람들 앞에서 자주 실수를 한다' 등 암박감, 불안, 긴장으로 인한 증상이었다. 이는 Cho(1998), Oh(199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연구 대상자들의 건강상태가 신체적 증상보다는 불안, 염려, 불안정한 문제인 정서적, 심리적 증상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혼가정 자녀의 건강상태가 정상가정자녀보다 나쁘다고 하더라도 최고가능점수 90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우려할 만한 건강상태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시기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를 보면, 성별에 따라 정상가정자녀들은 남·녀 모두 이혼가정의 자녀 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정의 경우 성별에 따라 평균점수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부모의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은 성별간에 차이가 없다는 Powell(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년에 따른 건강상태는 5·6학년은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나 청소년은 인지적으로 부모의 이혼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기가 되므로(Altshuler, 1989), 좀 더 잘 개발된 대처기술을 소유하게 되어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들과는 다르며, 부모의 이혼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잘 적응한다고 한 Jung(1992)의 연구결과와는 같다. 이처럼 부모의 이혼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라 자녀에게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처능력이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출생순위에 따라서 정상가정자녀가 이혼가정자녀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녀·장남의 경우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기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이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막내나 외동딸·외아들의 경우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던 아동이 부모의 이혼으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되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적에 따라 중상위권에서 정상가정자녀의 건강상태는 이혼가정자녀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가정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후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학교나 그 밖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이용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달용돈에 따라 1~5만원사이와 1만원 이하에서 정상가정자녀의 건강상태는 이혼가정자녀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상가정자녀의 경우 용돈이 없는 경우가 6.8%를 차지하여 이들은 신문보급, 구두닦기, 심부름하기, 강아지 목욕시키기 등의 용돈을 구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이혼가정자녀에서는 오히려 용돈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없었고 용돈의 수준이 정상

가정자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상류계층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의도를 묻고 벌을 가한다고 했다. 반면 저 소득층의 부모들은 권위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행동의 결과에 따라 벌한다고 한 Hall(198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혼가정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혼가정자녀들은 실업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처럼 자녀발달의 저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결과를 보여준다(Steinberg et al., 1981).

부모관련특성 즉,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정상가정자녀가 이혼가정자녀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혼가정이 경제적 수입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자녀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가정의 수입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깊지 않으며(Heath, 1988), 이혼 전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혼 후 겪게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는 경로가 다르다는 연구(Amato, 1993) 결과와 일치됨으로 보여주었다.

학교생활적응정도에서 정상가정자녀가 이혼가정자녀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측하는데는 가족 기능이 고려되어야만 하며, 부모의 이혼이 학령기아동의 사회화 기능에 작용하여 사회적 행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학교환경에 적응하는 아동의 능력이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Kang & Lee, 199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 및 학교생활적응정도에 관한 서술적 비교조사연구로 이혼가정자녀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서울·경기지역의 5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정상가정자녀는 577명, 이혼가정자녀는 123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문항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건강상태는 Shin(1995)의 건강증상조사서를 연구자가 보완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상이 포함된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생활적응정도는 Lee(1990)이 개발한 학교생활

적응정도도구를 사용하여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관계, 학교행사 관계의 4영역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서술적 통계, χ^2 -test,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 비교에서 정상가정자녀가(평균 11.99점) 이혼가정자녀(평균 19.15점)보다 건강상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정상가정자녀의 건강상태가 이혼가정자녀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6.51, p = .000$).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의 경중도 또는 빈도와 건강상태의 관계는 구체적이지 않으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의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가 정상가정자녀보다 나쁜 것으로 사료된다.
- 2)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에서 정상가정자녀(평균 38.99점)가 이혼가정자녀(평균 26.97점)보다 학교생활적응정도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정상가정자녀의 학교생활적응정도가 이혼가정자녀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104.07, p = .000$). 이혼가정자녀는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어 대인관계가 정상가정 자녀보다 원만하지 못하여 혼자서 지내는 경우가 많고, 학교생활적응정도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 비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상가정자녀가 이혼가정자녀보다 건강하였다. 즉, 남자아동·여자아동 모두, 5·6학년의 경우, 장남·장녀와 막내, 외동딸·외아들의 경우, 기독교·천주교, 불교 및 무교의 아동, 중상위권의 학교성적을 보이는 아동, 용돈이 월 5만원 이하의 아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중·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녀, 자녀의 대화상대가 부모·형제·가족이나 친구·선후배, 그리고 대화상대 없음의 경우, 아버지

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사무적인 경우와 어머니의 직업의 모든 구분에서 그리고 중상위층의 경제력을 가진 경우, 정상가정의 자녀가 이혼가정의 자녀보다 건강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는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모두, 4, 5, 6학년 모두, 장녀·장남, 막내, 외동 딸·외아들의 경우, 종교에 따른 모든 경우, 학업 성적이 상, 중, 하위권 모두, 용돈에 따른 모든 경우, 자녀의 대화상대에 따른 모든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의 모든 경우, 부모의 직업의 모든 경우, 경제상태가 중상위층인 경우에서 정상가정 자녀가 이혼가정자녀보다 학교생활적응정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 1) 지역, 계층, 이혼형태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상들을 표집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반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2) 하나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측정방법도 질문지 조사법에 국한시키지 말고 면접, 관찰, 자기보고 형식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3) 본 연구에서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 상태 및 학교생활적응정도에 관련된 변인에서 제외된 다른 관련 가능한 모든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확대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Administration of court (1995). *History of Private Law 1995*. Seoul:Administration of court.
- Ahn, Y. B. (1984).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s of Adaptation, Non-adaptation. Danguk University of Korea, CheunAnn.
- Altshuler, J. L. & Ruble, D. N. (1989). Developmental change in children's awareness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uncontrollable stress. *Child Development*, 60, 1337-1349.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thesi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Anne. Hooper (1993). *divorce and your children*. Unwin Paperback.
- Cho, N. J. (1998). *Children's stress event and coping*. Choongnam University of Korea, ChungJu.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 R. L. & White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Y:W.W. Norton & Company.
- Fergusson, D. M., Lynsky, M. T. & Horwood, L. J. (1994). The effects of parental separation, the timing of seperation and gender on children's performance on cognitive tes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6), 1077-1092.
- Hall, E., Lamb, M. E. & Perlmutter, M. (1986). *Child Psycholigy Today*. NY: Random House.
- Heath, P. A. & Mackinnon, C. (1988). Factors related to the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11(3/4), 49-65.
- Hetherington, E. M. (1989). divorce: A child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851-858.
- Hetherington, E. M., Hargan, M. S. & Anderson, E. R. (1987). Marital transitions: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2), 303-312.
- Hodge, W. F. (1991).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Divorce*. NY: John Wiley & Sons.
- Holmes, T. & Rahe, R. (1967). The Social

-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logy Research*, 11, 213-218.
- Joo, S. H. (1991). *A study of mental health on divorced family children*. E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Jung, H. S. (1992). A various analysis of family study. *Korean Journal of Family*, 4, 99-114.
- Kang, S. H., Lee, J. Y. (1992). The Buffer Effect of Social Stress on children's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3(2), 102-123.
- Kim, Y. H., Cho, K. J., Kim, K. J., Lee, H. Y., Moon, H. J., Park, S. A., Kim, K. B., Shin, H. S. (2001). The Commencement Model of Ori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Korean Nursing*, 40(2), 51-68
- Koo, J. A. (1995). *The Relationships of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Adaptation on School aged children*.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Kurdek, L. A. (1981).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36(8), 856-866.
- Lee, M. J. (2001). *Problems of system for divorced family children's protection*. Seoul:Korea Family Affair Consultant.
- Lee, S. P. (1990). *A difference analysis of school achievement and characteristics by school adaptation state*. Honigik University of Korea, Seoul.
- OH, E. S. (1997). *A structure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E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Powell, D. R. (1983). *Emerging directions in parent-child early intervention. In parent Education a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Emerging Direction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d. by Powell, D.R., NJ:Ablex.
- Shin, H. S. (1995). A Study of Stress and coping on School Aged Children. *J Korean Acad Nursing* 26(4), 808-819.
- Shirley M. H. (1986). Single parent families. *Family relation*, 35(3).
- Stanley-Hargan & Anderson (1987). Paternal separation and the military dependent child. *Military Medicine*, 146(5), 320-322.
- Steinberg, L. D., Catalano, R. & Dooley, D. (1981). Economic anteceden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Development*, 58, 1348-1357.
- Stolberg, A. L. & J. P. Bush (1985). A path analysis of factors predict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4(1), 49-54.
- Stolberg, A. L., Camplair, C., Currier, K. & Wells, M. J. (1987). Individu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11(1), 51-70.
- Yarcheski, A. & Mahon, N. E. (1986). Perceived stress and symptom patterns in early adolescent: The role of mediating variabl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9, 289-297.
- You, A. J. (1985). *Child Environment*. Seoul: ChangJiSa.
- Abstract -
- A Comparative Study of Health State and School Adaptation between Children in Divorced Family and in Normal Family**
- Ji, Eun Sun* · Cho, Kyoul Ja***
-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udy that compares health state and school adaptation between children in
-
- *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divorced family and in normal family. Study results will provide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vention program designed to help children in divorced family adjust to their crisis.

Method: The study subjects consisted of 700 children in 4th, 5th or 6th elementary school grade, residing Seoul and Kyunggi regions. Among these subjects, 123 were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and 577 were children with normal family. The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was measured by Health Symptom Questionnaire developed by Shin and revised by the investigators. The instrument consisted of 30 items measuring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symptoms. The level of school adaptation of the subjects was measured by School Adaptation Scale developed by Lee, which consisted of 4 dimensions with 20 items what measures relationship with peer students, learning activity, observance of regulation, and participation of school activity. The investigators visited the schools and collected data in the classes using the questionnaire after explaining the purpose and procedures of the study to the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ANOVA using the SPSS PC+ statistical program.

Result: First, the mean health state score in children with normal family ($M=11.99$) was higher than that in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M=19.15$),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t=-6.51$, $p=.000$) between the two groups, which suggests that children with normal family have better health state than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Second, the mean school adaptation score in children with normal family ($M=38.99$) was higher than that in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M=26.97$),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104.07$,

$p=.000$), which suggests that the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with normal family is better than that of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Third, in comparison of health state between the two groups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sex,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health status of the children, school year, birth order, religion, school achievement, amount of monthly pocket money, parents level of formal education, occupation of parents, economic status ($p<.05$). Forth, in comparison of the level of school adaptation between the two groups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most variables ($p<.05$), suggesting that children with normal family had better capacity of school adaptation than children with divorced family.

Conclusion: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the parent's divorce had great influence on children's health status and school adaptation capacity. The implication for nursing is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supportive interventions for the high-risk children who have decreased health states and school adaptation capacity due to the divorce of their parent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explore protective factors for the prevention of health and adaptation problems in children.

Key words : Health State, School Adaptation